“성소수자도 절에서 편히 쉬다 가세요”

〈LGBT〉

日 트렌스젠더 스님, 성소수자 위한 사찰 건립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산케이 신문’ 4월 20일 보도
건축비용 1400만엔 모금 계획
2018년 봄, 1차로 완공될 예정
“고민 상담·경조사 도와줄 것”

성소수자에 대한 담론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일본 트렌스젠더 스님이 성소수자를 위한 사찰을 건립한다.

‘산케이신문’은 4월 20일 오사카 네야카와시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찰 ‘쇼센지(性善寺)’ 건립을 준비하는 트렌스젠더 시바타니 소슈쿠(柴谷宗叔, 63) 스님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 절은 2018년 봄에 1차 완공 예정이다. 스님은 예전의 자신과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사찰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2017년 8월 이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정식 발표하며 “성소수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찰,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찰, 성소수자들의 경조사를 맡아줄 수 있는 사찰을 취지로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성소수자들의 이해와 권익을 위한 활동에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쇼센지 건립은 이 활동의 연장선이다. 절의 이름은 ‘다양한 젠더(性)는 선한 것(善)’이라는 신념에서 따왔다. 쇼센지는 네야카와시 본가의 별채를 개축하여 지어질 예정이다. 시바타니 스님은 “큰 사찰을 새로 지을 생각은 없다. 어디까지나 민가를 개축한 절로써 사람들이 보다 가볍게 들렀다 갈 수 있는 절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절의 설계는 시코쿠 순례에서 인연이 된 우타 이지요(歌一洋, 70) 前긴키대학 교수가 담당했다.

일본의 전통적인 사찰건축을 모티프로 철골 콘크리트, 120㎡(약 36평)로 지어질 쇼센지는 내년 봄경에 1차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비용 1,400만엔(약 1억 4천만원)은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그 뜻에 동참하여 본존불로 모실 대일여래(大日如來)상과 여타 불상들을 시작으로 법당 장엄에 필요한 법구들은 도반스님들과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보시해줬다.



성소수자 페스티벌에서 연설하는 시바타니 스님.



쇼센지 본당 완공모형. 시바타니 스님 제공

시바타니 스님은 “성소수자 커플들은 대부분 사실혼 관계임에도 여러 문제로 결혼식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자손이 없다보니 죽고 나서 납골을 하거나 장례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쇼센지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해주는 절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절, 종파나 사상을 불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포부를 전했다.

시바타니 스님은 스스로 성소수자이기에, 성소수자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성의 몸을 가졌지만, 성적 정체성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를 강요한 아버지와는 항상 불화가 있었고, 집을 떠나기 위해 집과 거리가 먼 와세다 대학에 진학했다.

스님은 “본가에서 나오자마자 여성복을 사고 화장을 했다. 그리고 도쿄의 게이 바 등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졸업 후에는 ‘요미우리 신문’에 취직, 경제부 기자와 편집부 위원을 거쳐 나름의 출세 가도를 달렸지만 양복과 넥타이는 언제나 불편한 존재였다고 한다. 오히려 집에서 여장을 하고 같은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했다고 한다.

불교와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91년 회사에서 간 단체 여행이었다. 회사에서 관음성지인 세이간토지를 방문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스님은 일본 각지의 성지를 순례하며 개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당시에는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서 관광차원에서 순례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1995년 한신대지진으로 고베에 있던 스님의 자택이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일어났다. 다행히 스님은 당시 부모님이 계신 네야카와시에 있었기에 무사했다.

지진 이후, 무너진 집을 수습하러 간 스님은 폐허 속 너덜너덜해진 〈납경장〉을 발견했다. 〈납경장〉은 일본사찰에서 순례자들에게 순례 온 것을 인증해주며 절 본존불의 명호와 절의 직인을 찍어주는 책을 말한다. 스님은 “폐허 속에서 〈납경장〉을 주워들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지진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부처님 은혜에 큰 감사를 느꼈다”며 관광이 아닌 순례로써 시코쿠의 88개소 순례를 나선 계기를 설명했다.

순례자의 복장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같은 것을 본 스님은 ‘남자답지 않아도, 여자답지 않아도, 순례자는 모두 같은 순례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일로 출가를 결심, 진언종의 총본산인 고야산의 고야산대학 대학원에 진학, 2005년 신문사 조기퇴직 후 출가하여 소슈쿠라는 법명을 받았다.

한편 스님은 이후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2010년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호적의 성별도 여성으로 변경했다. 당시 진언종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성소수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총무원장의 배려로 승적의 성별도 여성으로 변경, 진언종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스님이 됐다.

불교 유적 파괴 시름 던다

온전한 불교 유적, 가상현실에 ‘저장’

‘싸이아크’서 만들어 ‘구글’에 제공
PC, 스마트폰 등으로 감상 가능해

빈번히 일어나는 불상 파괴, 사찰 전소 등의 문제에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이 ‘싸이아크(Cyark)’와 합작해 가상현실에 불교 유적을 그대로 구현해 냈다.

‘라이언스로어(Lion’s Roar)’와 ‘NBC뉴스’는 4월 24일 ‘구글’과 ‘싸이아크’가 합작해 가상현실서 유적들의 모습을 새로 구현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는 누구나 PC와 스마트폰, 가상현실(VR) 헤드셋 등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비영리기관인 싸이아크와 협력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싸이아크는 실제 그대로 정확하게 사찰들과 세계 문화 유적지를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냈으며, 구글은 이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싸이아크가 만든 이 3D 그래픽 데이터는 3D 스캔 장비와 드론, 수천 장의 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 유적지의 실제 모양을 정확하게 재현해 냈다. 그 중에서도 26개의 문화유적은 VR헤드셋으로 360도 감상할 수 있다. 싸이아크는 몇 달 내로 열 개의 문화유산이 VR헤드셋 연동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이아크는 지속적으로 불교 유적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왔다. 현재 싸이아크는 200개 이상의 불교 문화유산을 구현해 낸다. 싸이아크의 CEO인 존 리체브스키는 “이 유적들의 구현을 위해 2003년부터 15년간 불교 유적을 찾아다녔다”고 ‘NBC뉴스’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싸이아크의 설립자인 벤 카시라는 캘리포니아서 사는 이라크출신 엔지니어였다. 카시라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유적인 바미얀 불상들을 파손했다는 것을 알고 회사 설립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당시 1500년 된 불상들이 탈레반 군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유적이 있던 자리엔 폭발에 의한 거대한 구멍만이 남았다.



가상현실에서 3D그래픽으로 구현된 사원유적.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카시라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불교 유적이 입을 피해나 파괴가 겁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 세계 유적의 모습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저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태국의 아유타야 사원 등 사찰 뿐 아니라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 등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를 3D그래픽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박진형 기자

“조계사 좋아요, 불교 좋아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발언
한국불교 대한 관심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내한 프로모션차 한국을 찾은 베네딕트 컴버배치〈오른쪽 사진〉가 출국 전 조계사와 경복궁을 찾았다. 이에 외신들은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바’ ‘메트로’ 등 외신은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4월 13일 오전 스태프, 통역사와 함께 서울 조계사 등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닥터 스트레인지’ 촬영 이후 불교에 심취해 불교 신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합장인사를 한 것도 언급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이런 행보에 외신들은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도 “불교 문화재가 잘 보존된 곳”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Variety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아시아 투어를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절과 궁에 들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머물고 있던 숙소와 가까운 조계사와 경복궁을 안내받아 관광했다. 이후 조계사, 경복궁 투어에 큰 만족감을 전하며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감동과 놀라움 그 자체다. 아마 이번 내한이 절대 마지막 방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